

2025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8.26.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옥 위원장, 김미하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2	-	2	8	-	8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8	-	-	8

다. 전월(7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후속 보도 관련> 단독 보도로 지역의 백제 역사 왜곡, 금산군 공무원 복귀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후속보도를 챙겨 주길 바람.	단독 보도 후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관련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후속 보도를 통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보도	<카메라 영상 관련>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영상이 흔들리고 안정되지 못한 장면들이 나옴. 뉴스영상에서는 카메라 색 온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음. 그 전에는 주황색 톤이 많았는데 7월에는 초록색 톤이 많았음.	제작이 겹치다보면 안색본 외주카메라 인력을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샷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뉴스영상 변화는 뉴스센터 카메라를 교체해서 화질이 좋아진 것임. <25. 8월 조치>	'25.7월
보도	<폭역 지도 관련 보도> 폭역위험 지도를 분석해주고 문제점을 짚어준 보도는 의미 있었으나 지역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불평등 프레임이나 지역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낙인효과 관련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특정 지역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표현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보도	<비난 용어 사용> '승활섭 의원의 향소 비난' 보도에서 시민사회 시민들이 지적하는 목소리를 '비난'이라는 용어보다 '비판'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임.	비난과 비판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교양	<방송시간 및 홍보 관련> '오지랴 보건실' 프로그램의 주체인 고등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 편성 시간에 대해 고민해 주고 교육청 홍보도 필요해 보임.	현재 로컬시간에서 학생들이 귀가 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목요일 저녁 9시밖에 없고, 주말 오전시간대를 활용해 재방송을 편성하고 있음. 교육청 홍보 관련해서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교양	<시시각각 주제 연명충> '시시각각' 주제가 대선, 남북관계, 의료개혁 등 시의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에 대한 이슈가 반영된 주제도 필요해 보임.	시의성 있는 아이템 선정으로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문제 등 청년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교양	<인생나잇 출연자 관련> 지역 공동체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예술가분들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분들과 연구단지 과학자 분들의 일상도 담아서 방송해 주었으면 함.	50분 분량을 채우기 위해 독특한 분야의 인물들을 섭외하는데 공동제작하는 충북 MBC와 협의해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교양	<학교 섭외 관련> '오지랴보건실'에서 용남고와 한일고 편을 봤는데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평범해 보이지 않아서 평범한 학교도 진행해 주길 바람.	올해 6개 학교로 한정돼 진행하는데 한일고와 보령해양과학고처럼 차사고나 특성화고도 있지만 앞으로 대전전민고, 대전여고처럼 일방고도 진행할 예정임. <25. 8월 조치>	'25.7월
교양	<다시보기 자막방송 관련> 홈페이지나 유튜브 다시보기에서 자막방송 기능으로 보게 되면 시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확도가 떨어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법으로 자막파일을 따로 작성해서 올리거나 시로 생성된 자막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논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기타 (시청자 의견)	<앵커 메이크업 관련> 시청자의견에 올라온 것처럼 앵커들의 메이크업이 70년대 배우들의 극 분장처럼 과하다는 느낌이 있음.	메이크업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훈련을 거치면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숙련된 메이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5. 8월 조치>	'25.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8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사랑의 집 고치기 관련 보도> '사랑의 집 고치기' 보도를 할 때 집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보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면 진정성이 잘 느껴질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보도	<폭염 기획 보도> 7월에 방송했던 폭염 기획보도가 인상적이었는데 8월에는 한건이었음. 예산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된 것인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보도	<후속 보도 관련> 김충현씨 사망 후속 보도 및 한화생명 불파크 시설 문제 심층 보도, 넥스트 클럽 관련 보도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시청자게시판 제보 관련 보도> 전기자전거 동물 학대 문제 제보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보도로 이어진 것은 좋아보였음. 이 보도가 어떻게 제작된 건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광복80주년 주제 관련> 시시각각에서 광복80주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방송했지만 독립정신 계승이라는 소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패널 구성도 같은 관점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방송 분량 관련>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 50분물은 좀 길어 보이는데 시즌2가 가능하다면 디지털 콘텐츠처럼 20분을 넘지 않게 편성해보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기타	<제작환경 개선 관련> 제한된 제작환경만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한계를 이해시키기 보다는 예산확보와 투자 등 그걸 뛰어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기타	<공익사업 참여 관련> 사랑의 집 고치기 보도를 보면서 이런 공익적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2025년 8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김옥 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8월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올라왔는데요. 정정보도 요청 1건, 진행자 불만 1건, 출연자 불만 1건 그리고 기타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

특히 없으시면 8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관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긴 한데 최근 저희 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지난달에 격려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것과는 별개로 시청자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주시는 의견을 듣고 제작 과정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어서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운데 다음주에는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오늘도 위

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화 위원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8월 무더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인생내컷> 두 편을 봤습니다. 마을 도예가 신정숙 님 편과 극단 마중 편인데 마을 도예가 분은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감돌고기가 멸종되지 않고 건강한 물고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방도 운영하시는데요. 그 삶을 지역에서 나는 지도 오래 되셨는데 공방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건강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신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런 분을 소개해 주셔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박은숙 대표님이 해당 편에 나오셨는데요. 문화 예술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나오셔서 반가웠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들을 지역에서 보여주셔서 그 마을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 마중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인데 그곳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모두 아기목소리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넣어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공연을 통해 사회적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키면서 장애인의 예술성을 사회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남유식 아나운서 멘트로 미하이 칩센트미하이의 몰입과 관련한 청소년 캠페인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강한 방송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세혁 국장님 목소리로 전달된 재난 대비 방송도 유익했고, 아침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짧은 건강 상식을 들었는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광복 80주년 특별 방송 소년소녀합창단도 좋았는데요. 과거와 현재 세대를 연결해주는 무대였으며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연출이 세련되고 조화로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꼭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복 80주년 캠페인 영상은 시대를 아우르는 과거와 현재의 영상들을 조화롭게 편집한 작품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네이밍도 '정정당당 대한사람' 이라는 문구로 대전MBC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부른 노래인 '그날을 기억하며'에서 태극기 흔드는 부분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와 대전MBC가 함께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47번째 집 준공식을 봤는데요. 47호까지 오는 동안 이 집이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선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길게 보여주시면 진정성이 더욱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같이 봉사하면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이점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전기자전거 동물 학대 문제 관련해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25일에 나간 보도가 그 글을 계기로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의 의견이 그렇게 보도로 이어진 답변은 좋아 보였고요.

8월도 더웠기 때문에 폭염, 폭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7월에 방송됐던 폭염 기획 보도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이번 폭염 기획은 한 건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서 끝난 것인지 궁금하고요.

폭염 속 불평등 노동 환경에 대해 보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에도 노동자 사망 사건이 2건 보도됐습니다. 한 건은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 그리고 다른 한 건은 공사 현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분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야외 근로나 급식실 등 폭염에 취약한 근로환경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온열 질환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폭염 기획이 계속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김충현 씨 사망 보도 같은 경우도 두 달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원청 책임자 소환 문제나 방지 협의제 출범에 대한 부분을 다룬 걸 봤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도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관련 문제가 이번 달에 많이 터졌잖아요. 시설 문제도 있었고 장애인석 문제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시설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고 관련해서 구단과 대전시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한화이글스의 좋은 성적에 비해서 경기장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층 취재해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클럽 관련해서 최근 보도가 나왔던 걸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넥스트 클럽 문제는 리

박스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리박스클은 교육사회로 완전히 침투가 완성되기 전에 발각된 반면에 넥스트 클럽은 이미 많은 위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또 위탁을 하려다가 이슈가 되면서 무산이 된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넥스트클럽이 올해 말에 재위탁 심사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전까지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보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15를 맞아서 문양목 지사 등 국외 운동가 여섯 분이 대전현충원에 봉환되는 과정이 보도되었는데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대전현충원에 관련된 책도 쓰고 관심이 많다 보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국지사 묘역 자리가 부족해서 7묘역에서는 기존 8평이었는데 1평으로 줄여서 모시기도 했고요. 그 7묘역마저 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상자, 소방관 그리고 순직공무원 묘역 등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묘역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 애국지사 묘역을 구성해서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장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장군 1, 2 묘역을 보면 장군들은 8평에 안장되어 있는데 국외에서 힘들게 모셔온 분들을 초라하게 모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는 간도특설대나 일본군, 만주군을 했던 친일파 묘역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외에서 애국지사들을 모셔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한 데 섞어두는 게 후손으로서 옳은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봉환되는 포인트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안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중국, 러시아로 출국해서 안중근 의사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유해 매장 추정지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고국에 죄송스럽지 않게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아직은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에도 <오지랴 보건실> 재미있게 잘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조회 수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대 갈등 해소에 방송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회인 6회 이후에도 시즌 2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무더위에 방송 제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8월 17일에 <시시각각-광복 80주년, 우리의 과제는?>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8월 15일에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국민적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독립 정신 계승 방안에 초점을 맞춰 다

루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성찰을 나누는 자리로 기획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저는 '독립 정신 계승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과거의 정신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청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큰 제목이 '우리의 과제'였던 만큼 광복 80주년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해주길 기대했었습니다. 소주제처럼 독립 정신 계승 방안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뤄주셨는데 실제 방송 시그널 영상을 보면 흥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도로명 폐지 논란, 뉴 을사오적 규탄 움직임 및 관련 기관장 사퇴 요구 등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던 주요 이슈들을 보여주며 논의의 범위를 그 주제로 한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소주제가 독립 정신을 소재로 한 거지만 이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독립 정신 계승보다는 '우리의 과제'라는 큰 주제에 좀 더 집중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두 분이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 출신이시고 한 분은 충남대 교수님이신데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세 분이 자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독립 정신 계승을 다루고자했다면 실제 그 이해 당사자들을 패널로 초청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주제를 선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역사적 해설 위주로 세 분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을 못 이길 줄 알았지만 이미 이긴 것이다"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소 편향적인 관점으로 방송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광복 80주년을 단지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 정신을 포함한 정치·경제·문화·사회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방향으로 기획된 데 반해,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지역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제안인데요. 제가 5월부터 활동하면서 중간 중간에 방송 제작 환경과 장비 관련해 말씀해주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방송국들이 그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또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계속되었던 부분에 충분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의 정체성도 지키고 있고 지역민의 삶을 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시대의 흐름이자 방송이 응답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도 마찬가지로 9월 이후 하반기에는 대부분 내년 예산을 짜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관련 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MBC에서도 시청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단순하게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지역성이라든지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인 지원과 예산 책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작 환경만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한계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본사와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투자로 보다 나은 제작 환경이 조성되고 그를 바탕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먼저 <인생내컷>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생내컷> '산오락회' 편을 재미있게 봤는데요.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요 전문밴드를 조명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들의 노래를 듣고 오랜만에 아코디언 연주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지랴 보건실>도 이번 전민고 편에서 다른 곳과 다르게 점심시간에 보건실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특이했고, 자연스러운 학교 일상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뉴스에서 대형건 전기자전거 학대 관련 보도를 봤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속 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세 번 이상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다루주는 점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

김옥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선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선희 위원

먼저 <오지랴 보건실>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가 청소년이라는 연령층이 방송 소비자로서 점점 소외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하고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대전·충청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구성도 신선했고요. 기획 취지나 내용적인 재미 면에서도 확실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편성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학교들의 모습도 함께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주 타깃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방영 시간 5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선호할까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최근에 젊은 층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나 디지털 콘텐츠들은 보통 2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시즌 2나 이후 기획이 있다면 타깃층의 니즈에 맞게 분량이나 편성을 다양하게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섭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뉴스 모니터링을 하다가 ‘대전MBC 사랑의 집 고치기’ 뉴스 단신을 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전MBC가 이런 좋은 취지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엔 알게 됐거든요. 단신으로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재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법률 상담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능 기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광복 80주년 캠페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딜레마인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방송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전기자전거 동물학대 보도는 대전MBC뉴스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대응 문제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보도에 대해 좋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속성 면에서는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여러 아이tem들을 동시에 취재하다 보니까 일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예산 지원은 ‘팩트체크’ 기획에만 해당되고 폭염 관련 기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충현 씨 관련 사망 보도와 한화생명 볼파크 시설, 넥스트 클럽 보도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도 대덕구에서 넥스트클럽 관련 사후 평가나 심사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후속 보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전현충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된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동행취재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각각>에서 광복절 관련한 독립 정신 계승 방안에 대해 방송을 했는데요. 지난 8월 15일

이전부터 뉴라이트 논란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한 김형석 관장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방송에서는 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느라 패널 구성도 일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도 김형석 관장 퇴진 관련 뉴스는 지속적으로 보도 중입니다. 서울 쪽으로도 송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끝까지 뉴스로 다룰 예정이며, 관장이 퇴직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비포앤애프터 방식으로 실제로 집이 바뀌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뉴스 안에 잘 담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인생내컷> 마을 도예가 신정숙 씨 부부와 극단 마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인생내컷>이 한국방송대상 지역교양 TV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충북과 공동 제작한 작품인데, 극단 마중은 충북 제천의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 극단이고 마을 도예가 신정숙 씨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잘 나가는 분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워낙 많이 있고 또 연예인들 나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인생내컷>은 프로그램을 통해 덜 조명 받고 덜 유명한,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담을 수 있어서 만들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로컬스럽지 않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구성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캠페인은 환경보호, 경제, 청소년 세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메시지를 잘 담기 위해서 환경은 금강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경제와 청소년 분야도 각각 그에 맞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메시지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긴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지랴 보건설>은 현재 5화까지 방송되었고 다음 주에 충남 정산중 편이 마지막으로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충남 4개 학교, 대전 2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형태를 고려해서 선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일고 같은 특목고, 보령 해양과학고 같은 특성화고, 그리고 계룡시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의 일반고, 마지막으로 정산중까지 포함해서 형태별로 고르게 학교들을 선정했습니다.

대전 지역 학교는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고요. 접수된 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할까 하다가 대전시교육청에 어느 정도 권한을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일반고 2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냐고 학교측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작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지역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또 지역 방송사들 전체가 연합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오지랴 보건실>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유튜브 전담 부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쇼츠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의견 주신 것처럼 시즌2 때는 분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라디오 쪽에서도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가 한국방송대상 사회공익 라디오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거든요. 9월 3일 방송의 날에 3개 방송사에서 동시에 시상식이 송출되는 큰 행사인데 저희가 2개를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캠페인은 '스테이션 브레이크' 시간대에 방송되는데요. 이 시간대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위치한 대전MBC에 할애된 시간입니다. 주로 지자체 축제 홍보나 관광캠페인 등이 많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주로 지상파 3사들의 수익형 공간이죠. 하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익 의제를 발굴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흥미롭게 전달하자는 기조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올해가 마침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라서 EBS나 KBS 등 다른 매체에서도 유사한 캠페인을 만들어서 송출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보려고 선거 개표방송 카운트다운 방송 영상을 확보했구요. 거기에 저희 소년소녀 합창단을 활용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곡을 연습해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화음이 잘 맞고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이 바로 '영웅'의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콜라보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 대한사람'은 제가 직접 만든 네이밍인데요. '대한사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관순 열사께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한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정당당 대한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의미 있고 울림 있는 의제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연중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정과제로 '과학기술 수도 대전'이 지정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중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방산을 시작으로 대전의 주요 과학기술 역량과 관련 산업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본 끝에 지난주에 대전상공회의소, 대전테크노파크와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선정된 지역 기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받아서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무료로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 자회사인 파머스에서 협찬을 할 예정입니다.

대전MBC국제태권도대회, 한빛대상, KWC(코리아 웹 콘테스트) 등 대전MBC가 생각보다 공익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가 해마다 두 번씩 2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배, 장판, 콘크리트, 철골 공사 등 각 분야의 단종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회원 수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집 한 채당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섬교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문 위원님께서 법률 자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요. 정성일 위원님이 마침 안중근 루트를 가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콘티를 구성해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16년 전쯤에 보도특집으로 하얼빈역과 여순 감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매장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수익형 공간을 공익적인 콘텐츠로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키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안고 사는 MBC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공익에 대한 관심과 할애는 더 늘려갈 것입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

보통 대전MBC 뉴스가 끝나면 스포츠뉴스가 연결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스포츠뉴스 끝나고 다시 남유식 앵커가 받아서 대전MBC 뉴스를 하더라고요. 바뀐 건지 아니면 그때만 그랬던 건지 궁금합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매주 월요일 뉴스데스크에서 '스포츠 토크'이라는 코너를 저희 보도국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

주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서 한주희 아나운서가 스탠드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캠페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궁금한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주석 실장님 말씀하신 광복80주년 캠페인 ‘정정당당 대한사람’ 문구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회의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는데 더운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